

레저·관광·산업 아우른 '섬진강 마리나' 조성한다

광양시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망덕포구 중심 복합 해양관광거점 활용 의견 수렴 거쳐 하반기 국비 확보 추진

광양시가 섬진강변에 마리나를 조성해 세계적 관광객이 찾는 복합 해양관광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시장과 관계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섬진강 마리나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최근 해양관광 수요에 맞춰 섬진강을 복합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보고됐다. 특히 신산업 기반 구축, 주변 관광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 확대 방안을 위한 마리나 조성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섬진강 망덕포구를 중심으로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집와이어 등과 연계한 사계절 운영 가능한 실내 서핑, 어린이 물놀이 체험시설 등을 운영한다. 또 중소형 레저 선박 제조·정비 산업을 육성하는 제조업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운동주 시인을 테마로 하는 감성적 특화마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 용역은 지난해 9월 착수해 20여 차례 실무회의와 3차례 중간 보고회를 거쳐 이뤄졌다. 또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주변 관광 명소와 사업과의 연계성 등도 점검했다.

광양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 섬진강 마리나 조성을 통해 해양레저, 문화관광, 신산업이 어우러진 남해안권 섬진강 리버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섬진강 마리나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광양시 제공>

옥수수 기계이앙 가능할까 고흥군, 논 재배 실증 시험

고흥군이 논에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기로 하고 옥수수 기계이앙이 시험에 들어갔다.

고흥군은 지난 17일 고흥만간척지 시험포장에서 옥수수 기계이앙 연시회를 열었다.

이는 모내기기에 사용하는 이앙기계를 이용해 사료용 옥수수를 논에 심고 기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쌀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독려하는 상황에서 간척지 재배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목적도 있다.

그동안 고흥만간척지에는 논 타작물로 하절기에 수단그라스(가축 사료로 이용되는 작물)를 주로 재배했지만, 장마철 습해를 받아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할 실정이었다.

이에 고흥군은 수단그라스 대신 논에 사료용 옥수수를 심기로 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옥수수 직파 재배 대신 옥수수모를 갈려 이앙기로 정식하고 물을 빼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번 시험은 고흥만간척지 1.5ha규모에 절반은 기존 벼육묘 상자에 옥수수를 갈려 벼이앙기를 활용해 정식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포트상자에 옥수수를 갈려 채소 이앙기로 정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앙기를 이용한 옥수수 정식은 논에서 물을 뺐 후에도 정상적인 성장과 생육이 가능할 지가 관건이다. 채소이식기를 이용한 정식은 이앙기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앙기를 이용한 옥수수 정식 실험이 성공할 경우 논 타작물 재배기술의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증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터미널에 국내 최대 그래피티 눈길... 모델은 미국계 한국인 벨라

순천종합버스터미널 벽면에 세계적인 그래피티(Artist) 아티스트 심찬양 씨의 국내 최대 작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순천시 장천동 버스터미널 뒤편 골목 건물 벽면에 그려진 그림은 가로 22m, 세로 19m로 국내 최대 작품이다. 그래피티를 통해 쇠퇴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려졌다.

이 작품은 미국계 한국인 '벨라'를 모델로 그려졌다. 작가는 다양한 시선에 대한 포용과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만남의 광장'이 되기를 바라고, 장천동 도시재생사업 '몽미락'을 콘셉트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선택했다.

심 작가는 한국에 알려지기 전 이미 미국에서 인정을 받은 인물로 미국 곳곳에 한복 입은 흑인 여성을 그려 인종차별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렸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 17일 순천시 장천동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 대형 그래피티가 선보여 눈길을 끈다. <순천시 제공>

모든 시민에 재난지원금...여수시 조례안 통과

100% 시 예산 충당...재정 여건 변수

모든 여수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발의한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 지역화폐·상품권·선불카드,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의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곧바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00% 시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지만, 여수시는 가용재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21일 부분일식 보러 오세요 곡성 섬진강천문대 관측행사



2006년 3월 29일 부분일식.

해 달	서울 기준 최대식분 0.55	
부분일식 시작 15시 53분 04초	부분일식 최대 17시 02분 27초	부분일식 종료 18시 04분 18초

오는 21일 볼 수 있는 부분일식 예상도.

곡성 섬진강천문대는 21일 부분일식 공개 관측 행사를 연다.

이날 오후 3시53분부터 6시9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일식은 달에 의해 태양의 52% 정도가 가려지는 부분일식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측할 수 있다.

섬진강천문대 측은 태양 관측용 필터를 현장 배포하고 천문 강연, 3D 영상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섬진강천문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부분일식을 놓치면 향후 10년 뒤에 관측이 가능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순천 강변고가도로 공사 19~20일 야간 교통통제

순천시는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오전 6시까지 야갯장 옆 강변고가도로의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700m 구간에서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차량의 우회를 안내할 계획이다.

국가정원에서 서순천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교량 우측 도로 진입 후 풍덕교를 지나 유턴하면 되고, 서순천에서 국가정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교량 우측도로 진입 후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하면 된다.

이번 공사는 도로시설물 보강하기 위해 신속이 을 부분 고장과 차선규제용 교체, 가로등 33개 전면 교체 등 세 가지 공사를 일괄 추진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연 24% 수익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수목장 44.2%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남골당 37%

산소 4%

기타 14.8%

수목장 14%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남골당 74%

기타 12%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